

『숨은 본질을 보는 지혜』

【오늘의 메시지】

찬송하기

찬송가 455장
찬양은 가정에서 자유롭게 경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매일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물질보다 지혜다. 지혜는 문제의 본질을 보는 힘이다. 본질은 숨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질을 잘 찾지 못한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어지는 선물이다. 오늘 성경에서 다윗이 선을 악으로 갚는 나발의 악한 행위를 보고서 참지 못하여 복수를 결심한다.

기도하기

가족 중의 한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다윗은 400명의 무리를 데리고 그를 한 번에 쳐부술 마음을 먹었다. 이때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급하게 다윗의 이런 행동을 막았다. 옆드려 다윗에게 진언을 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언약의 눈으로 볼 때 지금 다윗의 행동은 본질적인 것이 아닌 부수적인 것이다. 결국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에 감동을 받고 분노를 멈추고 아비가일을 축복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다윗이 나서서 그 악한 일을 행하려고 하느냐고 말한 아비가일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다. 사울을 두 번이나 살려주었던 다윗조차도 오늘 한순간에 어리석어지는 모습을 본다.

성경읽기

가족이 함께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우리고 다윗과 같을 때가 있다. 매 순간 늘 지혜롭기 어렵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고 자기가 행한 일에 초점을 두면 본질보다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어리석음에 빠진다. 결국 미래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잊어버리게 된다. 반면에 아비가일은 인간의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미래 계획 속에서 지금 이 일을 분별하고 있었다.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당장의 이익을 구하는 나의 욕심에 따른 행동은 아닌지 점검하자. 매 순간 마다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를 구하며 말씀에 비추어 합당한 일인지 분별하는 복된 사람과 온가정을 소망해 보자.

오늘의 메시지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읽습니다.

본문 나누기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평소에 말씀을 묵상하며 범죄하지 않기 위해 말씀을 마음에 두는 일이 중요하다. 오늘도 나의 행위가 아닌 주님의 은혜로 살게 됨을 감사하며 선으로 악을 갚는 믿음을 갖도록 간구하자.

함께 기도하기

한 주간 함께 기도할 기도제목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본문 나누기】

가족 구성원이 오늘의 본문 중에서 느낀 것을 자유롭게 나누도록 합니다.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특별히 사랑 받는 자』

【오늘의 메시지】

찬송하기

찬송가 516장
찬양은 가정에서 자유롭게 경해도 좋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개인 서신이다. 가이오에 대한 사도 요한의 사랑은 특별하다. 사도 요한은 본문 1절에서 가이오를 일컬어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가이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잘 드러내고 있다.

기도하기

가족 중의 한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첫째,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배격하고 진리에 대한 바른 지식 위에서 그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사도 요한이 사역하던 당시에는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 교사들이 도처에서 활동하며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렸다. 그러나 가이오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의 진리를 굳게 지켰다. 가이오의 이러한 행위가 사도 요한의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된 것이다.

성경읽기

가족이 함께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읽습니다.

둘째, 그는 복음의 신실한 동역자였다. 당시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적지 않았고 여행의 어려움도 많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은 수많은 고난과 회생을 감수해야 했다. 가이오는 이러한 순회 전도자들을 따뜻하게 영접하고 물질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사도 요한은 본문 8절에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했는데 이 말씀은 선교사역을 돕는 것은 복음의 동역자로 일하는 것임을 밝히 드러내고 있다.

본문 나누기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함께 기도하기

한 주간 함께 기도할 기도제목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려면 가이오처럼 복음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 내가 직접 선교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현재 있는 자리에서 선교사들의 선교사역을 돕는다면 이 또한 선교사역에 동역하는 것이다.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본문 나누기】

가족 구성원이 오늘의 본문 중에서 느낀 것을 자유롭게 나누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기』

【오늘의 메시지】

찬송하기

찬송가 311장
찬양은 가정에서 자유롭게 경해도 좋습니다.

본문에는 사람들과 떨어져 무덤 사이에 거처를 두고 살아가는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온다. 힘이 너무 세서 고랑과 쇠사슬을 끊고 밤낮 소리 지르며 자기 몸을 상해하는 사람이다.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세상 소식은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슬프게 한다. 마약중독, 조현증 혹은 분노조절장애로 여기저기 사건 사고가 많다. 이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들에게 다가가자.

기도하기

가족 중의 한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첫째, 피하지 말고 그 사람을 조종하는 귀신을 나오라 명하신다. 그 사람이 아니라 속에 있는 악한 귀신에게 명령한다. 사람과 귀신을 구분하는 것이다. 배후를 조종하는 악한 세력이 나가게 해야 한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으로 대하자.

성경읽기

가족이 함께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읽습니다.

둘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려보내야 한다. 회복된 사람은 너무 기뻐 주인으로 모시고 같이 있고 싶다고 간구한다. 하지만 예수님은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행하신 큰일과 자기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지 가족에게 알리라 한다. 우리가 사람을 보는 눈도 그래야 한다. 다윗 왕이 원수였던 사울의 아들이자 자신과 의형제였던 요나단의 죽음을 보고 받고 '활의 노래'를 지은 것도 맥락을 같이 한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인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대했다.

본문 나누기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함께 기도하기

한 주간 함께 기도할 기도제목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셋째, 귀신들린 사람도 전도자로 보아야 한다. 이 사람은 고침 받은 후 가족 뿐 아니라 거라사 지방을 비롯해 데가볼리에까지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전파한다.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었던 것이다.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사람과 조종하는 악의 세력을 구별하고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을 고치며 그들도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이들을 보고 대하자.

【본문 나누기】

가족 구성원이 오늘의 본문 중에서 느낀 것을 자유롭게 나누도록 합니다.

『민음이 자라는 세 가지 증거』

【오늘의 메시지】

찬송하기
찬송가 463장
찬양은 가정에서 자유롭게 정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믿음이 어린이와 같이 머물지 않고 자라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나의 어떤 모습을 보면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

기도하기
가족 중의 한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첫째로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16, 17절에도 감사하라고 연달아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이 건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의 뜻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다. 즉,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힘겹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아, 짜증나", "아이쿠 틀렸어" 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성경읽기
가족이 함께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둘째로 나의 '말'이 나의 믿음의 성장 여부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어 준다. 본문 17절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라고 말씀하신다. 내가 신앙에 철이 들었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품격과 격조가 높아지면 바로 내 말이, 내 언어가 가장 먼저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말은 나의 신앙이 겉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나의 인격과 품격의 집약은 결국 내 입에서 나가는 말로 표현된다. 그리고 그런 나의 말은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가 된다.

오늘의 메시지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읽습니다.

본문 나누기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셋째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 본문 14절의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무엇을 하든 사랑으로 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흘려보내야 할 사랑은 어디서 올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서 인간으로 세상에 오셔서 정말로 그 무서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바로 그 사랑에서 오는 것이다.

함께 기도하기
한 주간 함께 기도할 기도제목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로 고백하고 성숙한 언어를 사용하며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사랑을 기억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한다.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기도예배를 마칩니다.

【본문 나누기】
가족 구성원이 오늘의 본문 중에서 느낀 것을 자유롭게 나누도록 합니다.

신앙의 오솔길

하나님을 찬양하라 2

IV 어떻게 찬양합니까?

찬양은 우선 어떤 방법으로 드러지느냐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마음과 영으로 드러져야 합니다.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고전 14:15)고 하였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우리나라의 고백으로 찬양이 드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시 95:2)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감사의 표현이 삶의 고백이 되어 찬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풍성하게 하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통해 오늘도 찬양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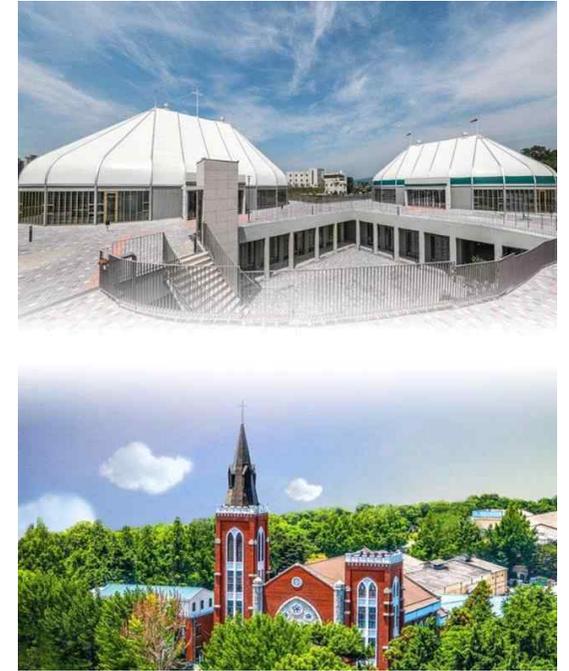
V 왜 찬양합니까?

아무리 좋은 목소리와 악기로 노래하여도 찬양의 동기와 이유를 모르고 있다면, 세상 노래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창조되었고(사 43:21),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으신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멋진 건축물이나 위대한 작품을 보거나 학문의 업적과 명예를 남겼을 때, 자랑하고 높이 줍니다.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원을 베푸신 주님이시겠습니까? 오늘도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높여 찬양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VI 찬양의 방해물

우리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많은 영적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는 미갈에게서 찬양의 방해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갈은 다윗이 벧레가 돌아오고 있다는 것 때문에 기쁨에 못 이겨 자신의 전부를 드러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하고 있는데 이것을 깨닫기는커녕, 왕으로서 지켜야 할 '체면'과 주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채 왕이 계집종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며 다윗을 업신여겼고 비아냥거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한 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삼하 6:21-22)는 큰 감동을 줍니다. 오늘도 인간의 체면과 시선을 뛰어 넘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이순창목사(연신교회) 칼럼 "하나님을 찬양하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림교회**

위임목사 : 최 용 희

임동 예배당 : 광주광역시 북구 경양로 7 T.525-5252 F.525-5260
수원 예배당 :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암길 303 T.525-0303 F.525-0301